

식민지인끼리 마주 대하기: 1920-1931년 조선 지식인의 만주 기행문에 나타난 '중국(인) 인식'
When colonized peoples met: Chosun intellectuals' travel writings about Manchuria and Chinese in the 1920-1931

제 1 장. 서론:

제국의 식민지배는 제국주의자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에 분명하다. 그동안 지배자로서의 일본과 피지배자로서의 식민지 조선 간에 존재했던 '수탈 - 지배', '협력 - 저항', '친일 - 반일', 나아가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 식민지 규율권력이 작동되는 '회색지대'와 '식민지 근대성'(colonial modernity)에 관한 풍부한 연구성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그런데 조선 '식민지 근대성'의 내면화 과정에 관하여, 기존연구는 '제국 - 식민지'라는 양자 간 관계에 치중하는 반면에 '식민지 - (반)식민지'라는 구도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물론 일국적인 틀에 갇혀 있던 국사 연구 관행의 탓이 있지만, 아시아인들을 서로 마주 대하지 못하게 하고 내지를 향해 나란히 서 피지배자 사이에 내적인 경쟁을 촉발하는 '식민지/제국' 통치의 성격(유선영 외, 2013:8)에 기인할 지도 모른다. 공포와 불안을 내포한 경쟁구조로 인해 '식민지/제국' 체제 내에서 일본을 통하지 않고 아시아인들이 만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만나더라도 폭력적인 충돌이 종종 발생하곤 했기 때문이다(차승기, 2012: 377-379).

과연 이들은 직접 대면할 수 없었을까? 식민지 시기에 일제에 의해 바라보이기만 했던 조선인은 피지배자라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중국인을 바라보는 주체로 변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들의 눈에 비친 (반)식민지로서의 중국과 그 공간에서 마주치는 중국인은 어떤 이미지였을까? 제국의 식민지인으로서 중국에서 여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연구는 1920-1931년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이 만주¹에서 현지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기행문에 나타난 '중국(인) 인식'을 추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만주라는 초국가적 공간에서 식민지인으로서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서로 마주 대하는 순간들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이 조선 지식인의 '식민지 근대성' 내면화 과정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는지를 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식민지조선 지식인이라는 특수한 여행 주체가 주목된 것은, 그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선 '민족', 식민지인과 근대적 주체를 함께 대변했던 존재였으므로, 그들의 담론 생산은 당시 조선인의 '중국(인) 인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 식민지 지식인들의 '중국(인) 인식'에 관한 한국학계의 기존 연구는 문학가들의 소설에 대한 문학적 분석²이 주를 이루었다. 중국 기행문을 포함한 근대 이후 기행문 연구도 문학연구 분야에서 주로 담당해 왔는데, 문학적 차원에서 기행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김경남 a, 2013:96). 본 연구는 허구성에 의한 글쓰기보다 작가의 내면이나 사상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기행문의 장르적 특성(홍순애, 2015a:486)을 염두에

¹ 중국에서 '만주(滿洲)는 동삼성, 동북 등으로 지칭되었으며, 역사학적으로 이 용어를 두고 한족중심 사관과 만주족 중심의 사관이 충돌하는 지역이었다. 근대시기에 이 지역과 관련되어 사용된 명칭으로는 만주(滿洲), 만주(Manchuria), 만주국(Manchukuo), 관동(關東), 동삼성(東三省), 동북(東北) 등이 있다. 만주(滿洲) 및 만주국(Manchukuo)이라는 명칭에는 이 지역을 한족 중심의 중국과 무관한 지역으로 담론화시키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의도가 있었으며, 동삼성(東三省), 동북(東北)이라는 명칭에 대한 강조는 일본 제국 팽창을 경계하거나 저항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담고 있다(Narangoa, 2002:14). 본 연구는 한국학계의 관례를 따라 '만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² 유인순 (2002), 표연복(2004), 김성욱(2007), 김성욱(2009), 이등연(2012), 남춘애(2011), 劉豔萍(2015) 등이 있다.

두면서, '문학'으로서의 기행문보다 '역사적 텍스트'로서의 기행문을 주목하고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지식인이라는 특수한 여행 주체의 의식과 무의식을 보다 정교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된다.

20세기 전반기 중국 기행문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인식과 형태로 재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 식민지 조선인의 초국적 이동은 (1) 제국 본국으로(조선→일본), (2) 제국의 법역에 속하는 또 다른 식민지로(조선→대만/오키나와/1931년 이후 만주국), (3) 제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국가로(조선→중국/1931년 이전의 만주) 그리고 (4) 제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어느 국면에서는 적대적이기도 한 국가/지역으로(조선→미국, 남미, 러시아 등) 구분할 수 있다(유선영, 2013:26). 이 4개 경로의 이동은 각기 다른 형태의 식민지인의 이주와 이동을 형성한다. 같은 만주행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여행의 시기에 따라 인식이 다양했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근본적인 전환점은 즉 1931년의 '만주사변'과 그 이듬해의 만주국 건국였다. 그 전환점을 전후한 두 시기에 조선인의 만주행과 기행문의 성격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보는 것이 분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유용하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을 전후로 한 만주 여행과 기행문, 즉 제 (2)의 경우에 집중되어 있는 데³에 반해, (3)의 경우에 해당되는 연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⁴. 이렇게 특정 시기에 대해 연구가 집중되는 것은 연구자의 편향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당시 만주행을 기록한 조선인들의 텍스트가 만주국 건국 이후 시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⁵. 이는 '선만일여(鮮滿一如)' 노선 하에서 만주국 시찰이 국책으로 장려되었고, 조선총독부가 주요 문학과 지식인들을 직간접적으로 만주에 보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⁶이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만주행은 같은 제국 안에서의 이동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 시기의 기행문들은 역시 일본식민주의자의 눈을 통해 만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발적 선택과 판단에 따라 쓰여진 자유로운 기행문이 아니라 모종의 의도와 목적에 맞춰 제작된 시국선전물이라는 혐오가 강했다(장영우, 2008:404).

본 연구에서 1920-1931년의 만주 기행문을 중심으로 조선 지식인들의 '중국(인) 인식'을 고찰하기로 한 것은, 기존연구 시기상 편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특정 한 시기가 지니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이 시기는 제 1차 세계 대전 후 일제의 국제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1 운동 후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통치를 확고히 하면서, 만주 침략기회를 노리고 있던 시기로, 1930년대부터의 본격적인 대륙 침략의 전단계였다. 따라서 이 시기 조선 지식인의 만주행은 일본제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치지만 아직 제국의 영향권에 완전히 포섭되지 못한 공간으로의 이동, 즉 다른 (반)식민지 공간으로 이동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 의해 쓰여진 기행문의 경우는, 일본의 식민 이데올로기의

³ 현재까지 만주 기행문에 대한 선행연구는 30년대 이후 만주 기행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는데, 대표적인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배주영(2003); 김외곤(2004); 서경석(2004); 류시현(2007); 서영인(2007); 김승구(2008); 장영우(2008); 김진희(2015); 홍순애(2015a); 홍순애(2015b); 秦亞偉(2015) 등이 있다. 20-30년대를 같이 다루는 연구로서는 허경진, 강혜중(2011)이 있다.

⁴ 이 시기의 만주기행문을 언급하거나 다루는 선행연구로는, 홍순애(2013b), 허경진, 강혜중(2011) 만이 있다.

⁵ 참고로 최삼홍, 허경진에 의해 편저된 『만주기행문』에 수록된 47편 기행문 가운데 1920-31년까지의 시기 내에 발표된 작품은 단지 10편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전부 1931년 이후에 발표된 것이다.

⁶ 1932년 만주국(滿洲國)이 성립된 이후 일제의 만주 이주의 정책적 후원에 힘입어 많은 저명한 조선인 문학가들이 만주를 방문하고, 그 경험을 기행문이나 소설, 혹은 수필로 기록해 두었다. 이 시기에 생산된 만주기행문에는 오족협화(五族協和), 왕도낙토(王道樂土)의 땅으로 선전된 만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 반영되어 근대화된 선진 '만주국'의 면모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허경진, 강혜중, 2011: 243)

작용태와 반작용태가 다수 나타났던(김경남 b, 2013:47) 동시대의 조선 국내기행문(국토순례, 조선답사 등), 그리고 1931년 만주사변을 거쳐 만주국 건국과 1937년 총력전 체제에 들어간 이후 조선지식인의 전면적인 전향(轉向)이라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대량 생산된 일본 국책에 협조하는 기행문과 성격상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시기에 생산된 기행문은 양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지식인들의 만주행은 개별적인 것이었고 원자화되어 있던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국의 권력에 의해 강제되거나 유도된 요인을 최대한 피하고, ‘제국/식민지’ 체제에 의해 쉽게 탐지되지 않는 ‘유동성’을 추적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식민지-(반)식민지’라는 구도에서 조선 지식인들의 ‘중국(인) 인식’을 고찰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확신한다.

제 2 장. ‘간접 체험’으로서의 ‘중국(인) 인식’

기행문은 문자 그대로 여행의 체험을 바탕으로 적은 글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행문에서 나타난 조선 지식인들의 ‘중국(인) 인식’은 그들의 구체적인 중국 체험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식인 또한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속한 사회전반의 집단적 경험에서 온 ‘간접 체험’의 영향을 외면할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간접 체험’은 역사적인 집단체험의 소산(所産)으로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에 누적되고 정착된 일종의 ‘고정관념’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대의 구전 혹은 언론매체 등의 담론을 통해 재생산된 집단적 상상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행문에 투영된 지식인들의 ‘중국(인) 인식’에는 이러한 ‘간접 체험’에서 온 선입견이 그늘을 드리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텍스트주의를 뛰어넘어 맥락에 주목할 때, ‘직접 체험’에서 온 ‘중국(인) 인식’을 분석하기 전에 ‘간접 체험’에서 비롯된 ‘중국(인) 인식’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7세기 중엽 이후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동아시아 지식인들 사이에 기존의 중화사상(華夷論)이 해체되고 각국의 주체적 입장이 강조된 지적 흐름들이 생겼다(박장배, 2015:102-3). 조선의 ‘소중화주의’나 ‘진경산수(眞景山水)’ 등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만주족이 지배하는 중국의 문물을 비판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기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격동기였던 만큼, 한편으로 조선은 일본 제국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한편으로 중화제국의 몰락과 그에 따른 청과 조선이 맺고 있던 조공관계의 붕괴, 그리고 서구/일본 열강들에 의한 중국의 반(半)식민화는 조선의 근대 지식인들에게 중국(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19세기 말의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전환점인 동시에, 조선의 ‘중국(인) 인식’의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였다(백영서, 1997:106; 정문상, 2012:207). 서구 제국주의와 일본에 무너지는 중국을 목도하면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이 대변하는 동양문명의 열등성을 의식하고, 새로운 아시아를 구상하는 일본의 오리엔탈리즘에 기반해서 조선인 스스로를 동양의 ‘중간민족’으로 자처하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서구보다 열등하고 동양 민족의 지도자급인 일본보다는 못해도 중국보다는 문명화되어 있다는 자기평가가 일본의 제국주의가 급부상하는 국면에서 조선의 지식층, 관료들 사이에 형성되었던 것이다(유선영, 2012:240). 이 때 중국에 대한 ‘근대의 낙오자’, 문명국에 패배한 ‘야만국’, 또는 ‘東亞의 病夫’ 등 부정적인 인식은 진화론적 문명관 및 일본 ‘아시아주의’의 수용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다는 점(정문상, 2012:222)에서, 정통적인 유교이념에 의해 생긴 청에 대한 부정과는 다른 차원으로 구별된다. 중국인은 또한 우둔하고 나약한 비문명인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⁷.

⁷ 이준식(2006:69-76)은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차별 또는 우월 의식은 일제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에서 찾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비교우위와 의사(擬似)제국주의 시선의 구성은 19세기말에 이미 조선에 확산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백영서(1997)는 대한제국기 언론에 나타난 한국의 중국 인식을 '천한 청'(賤淸), '동양평화의 일원인 중국', '개혁모델로서의 중국'이라는 3개의 차원이 구별되면서도 총체적으로 얽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정적인 인식 외에 중국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정서적 연대도 무시할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그 연대가 전통시대처럼 조공관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그들의 연대의식에는 각자의 민족적, 문화적 자존심을 살리고자 한 자민족중심적인 민족주의가 깊이 개입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근대전환기 조선 지식인의 '중국(인)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은 책봉조공질서로부터 근대 민족국가 체제 및 '식민지/제국'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동아시아 근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1910년 한일합병과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조선과 청이 선후로 멸망함에 따라, 두 나라는 공식적인 국가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중국과 조선의 관계는 전통적 조공관계체제 하에서의 '종주국 - 속국'이라는 층위로부터 '식민지 - (반)식민지'라는 층위로 자리매김하면서,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위치시킬 것인가에 관한 조선 지식인들의 인식 투쟁은 식민지 시기 내내 지속되었다. 한편으로 진화론적 문명관에서 비롯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식민지 시기에 계속 이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1920년대 중반 이래 조선으로 단기 혹은 장기 체류 중국노동자 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느낀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과 만주로 일자리를 찾아 떠돌 수밖에 없었던 와중에 '반중(反中)정서'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신문, 잡지 등 매체로 인해 조선 일반인들의 화교 배척 의식으로 전환·확산되었는데, 중국인을 "조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으로 인식하게 된다(김태웅, 2009:127). 이러한 인식과 중국에서 착취와 폭력에 시달린 재만(在滿) 동포를 향한 동정이 겹쳐져서, 중국인이 일상의 한국인을 억압하고 생존까지 위협하는 '인정없고 비열한 존재'로서 비취지면서 부정적 인식의 대상으로 한층 더 부각되었다(정문상, 2012:222). 바로 이러한 감정의 연장선상인 1931년의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과 평양과 인천 등지에서 화교에 대한 집단학살 사건⁸까지 촉발된 것이다. 이러한 박해 사건들은 노동 이주로 인해 벌어진 양국간의 갈등의 결과라기보다는 제국의 질서에서 중국인과 조선인의 관계 재정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었으며,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중국과 중국인 상상하기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분리해서 이해될 수가 없다(전희진, 2013:169).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또한 문학작품을 통해 재생산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희진(2013:164-166)은 식민지 시기 문학작품에서 나타난 중국인의 이미지를 (1) "돈으로 사람을 사고 저지른 죄 마저도 돈으로 해결한다"는 이미지; (2) "가해자이면서 강자"라는 이미지; (3) "아편쟁이"; (4) "인간이라기보다는 동물과 가까운" 이미지 등으로 분석한 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혁명에 조국 독립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중국에 망명한 독립운동가 사이에 비록 각자의 이념적 차이에 따라 연대와 활동의 대상을 달리했지만 중국을 '동병상련의 대상'이자 '연대와 협력의 대상', 또는 국제적 연대의 '중심'으로까지 간주하는 시선도 형성되고 있었다(정문상, 2012:222). 식민지 시기 전에 중국을 향한 지식인들의 연대의식은 대개 인종적·문명론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연대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⁸ 이 사건의 도화선(導火線)은 1931년에 만주의 장춘(신경) 교외의 만보산에 이주한 조선인 농민과 현지 중국농민이 충돌한 만보산사건이었다. 양국 농민 간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조선에는 《조선일보》의 오보로 조선인 수백 명이 희생당했다고 알려져, 조선 국내의 민족감정을 자극하여 조선 내에 거류하는 중국인을 적대시하는 운동을 도발시켰다. 이 때문에 인천을 필두로 경성·원산·평양 등 각지에서 중국인 배척운동이 일어났으며, 평양에서는 대낮에 중국인 상점과 가옥을 파괴하고 구타 학살하는 사건이 며칠간 계속되는 등 잔인한 폭동으로 확산되었다.

것이었던다면, 식민지 시기에 들어서는 탈식민과 근대의 주체화를 동시적 목적으로 하는 한국인의 현실인식이 투영되어 있었던 것이다(한기형, 2005:179).

위에서 살펴 본 1920-30년대초 조선 지식인들의 근대 인식과 공시적·통시적으로 형성된 '중국(인) 인식'을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다음 장에서 이러한 '간접체험'에서 비롯된 '중국(인) 인식'이 당시 만주행을 선택한 지식인들의 기행문에 어떻게 투영되고 굴절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체험과 상상의 격차, 혹은 풍문과 실상의 격차가 기행문만큼 정직하게 드러나는 글도 없" 다(서영인, 2007:210)는 의미에서, '직접체험'을 통해 형성된 조선 지식인의 '중국(인) 인식'에 대한 고찰은 또한 "실상과 상상의 격차"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제 3 장 만주기행문에서 나타난 중국(인) 인식 :

근대계몽기 동아시아의 영토전쟁에 있어 만주는 '동양의 발칸반도'라고 불릴 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로서 일본, 중국, 러시아, 조선 등의 권력관계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지점이자 '갈등의 요람'(Lattimore, 1932; 한석정, 1999:57 재인용)이었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한반도에 대한 일제의 침략과 수탈은 수많은 농민, 애국지사, 지식인으로 하여금 오랜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중국으로 탈출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그들 중의 절대다수는 만주 지역을 향하였다⁹. 만주는 한반도와 인접하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연속성으로서의 민족의 상징공간이었다는 민족의식과 더불어, 19세기 중반부터 이주한 조선인들에 의해 이미 정착촌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항일운동의 주요 활동지라는 현실인식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과잉인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식민지 개척과 지배를 위해 척식회사, 개발회사 등의 명칭으로 관변 이민 조직과 기구들을 조직·운영하였고, 거대한 제국의 척식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조정우, 2013:118). 이러한 제국의 척식 네트워크 또는 개별적인 밀항, 월경, 도주와 도피, 망명을 통해서 20세기초 조선인의 만주이주가 급증하였고 재만 조선인사회의 틀이 형성되어 갔다.

만주를 둘러싼 1920-1931년이라는 시기의 특수성을 논하자면, 식민지 조선, 일본, 중국 세 축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식민지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 시기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한편으로 역사적 고토(故土)로의 회귀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제국질서의 지역 구조를 놓고 볼 때, 제국의 '반주변부'에서 그보다 더 주변적인 '주변부'로 이동하는 성격도 갖고 있었다. 또한 3.1 운동 이후는 만주가 독립운동의 새로운 근거지로서 민족의 존립 문제와 연결되어 담론화되었던 시기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시기는 일제가 대만주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선만일체화(鮮滿一體化)' 정책이 전개되고 있던 시기였다. 1915년 '만몽조약'에 의거해 일본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자본과 군사력을 배치시키면서 중국과 만몽영유권 분쟁이 시작됨에 따라, 만주도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의 공간 질서에 점차 편입되어 가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 만주에 대한 일본의 지배가 흔히 '點과 線의 지배'라고 비유된 만큼, 일본은 만주의 철도노선과 그 주요 연선도시들, 즉 '點'과 '線'만을 장악했을 뿐,

⁹ 1925년 朝鮮總督府 警務局高等警察課가 정리한 통계에 따르면 1910년 9월 한일병합 이후 1923년 12월까지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총 68,36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北間島, 西間島가 각각 31,475명(46.0%), 28,457명(41.6%)이고 上海를 비롯해 중국 기타 지역, 미국, 영국 등 서구를 모두 포함한 기타 지역으로 8,437명(12.3%)에 불과했다. 총 이주 인구의 87%가 넘는 압도적인 수가 만주 지역을 향해 있었던 것이다. 警務局高等警察課, 海外在往朝鮮人調査, 調査彙報 第15號, 大正14年2月15日, 23쪽, 김승욱(2012:128)에서 재인용.

‘面’을, 다시 말해 광대한 농촌지역까지는 지배력이 미치지 못했다. 공간적으로 남만주 봉천 지역에서는 중국 동북군벌이 통치력을 확대하고 있었고, 북만주의 중소 국경 지역에서는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그 지역에 대한 일본의 지배는 나중에 만주국 건국을 통해서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조정우, 2015:225-233). 1920년대 조선 지식인의 만주행의 경우, 북만주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기행문이 서술되었던 것은 이와 관련이 없지 않았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시기에 일본의 대륙침략이 강화되면서, 조선 이주민들은 ‘일본의 중국 침략의 앞잡이’, ‘제국주의의 전초대’, ‘일본 관헌의 개’, ‘병균’¹⁰, ‘얼케이즈(二鬼子)’¹¹ 등으로 규정되어, 조선 이주민들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환영으로부터 제한·배척으로 바뀌게 되었다¹². 그것은 일본의 만주 침식이 조선인을 통해 ‘삼투적 팽창(osmotic expansion)’의 측면(Park, H. O, 2005:43)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배일(排日) 민족주의가 부상하는 중국에 일본의 신민(국적자) 자격으로 이주하는 것 자체가 조선인의 삶을 지속적인 위기로 내모는 상황이었던 것이다(유선영, 2013:30).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시기 만주로 향한 조선인들의 이주는 중국-일본-소련의 삼각축이 교착하면서 만들어 내는 복잡한 정세 안에서 규정되었고, 그런 촉박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일상을 아슬아슬하게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 및 정체성의 구성도 적대적이고 분열적인 제(諸) 민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시기 조선 지식인들의 만주행은 바로 이러한 불안과 복잡성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들의 만주행의 성격은 전통시기와는 다르게 국가의 공식적인 사절단의 자격도 아니고, 만주국 수립 이후 일제 주도 하의 만주국 선전의 성격도 아니며, 개인적인 자격으로 만주를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기행문은 대부분 신문이나 잡지의 기획물로서, 기자들이나 원고를 청탁 받은 필자의 탐방기로 쓰였다¹³. 근대적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해져 만주의 실상을 알리거나, 독자의 흥미와 공감을 불러일으켜 만주 여행을 독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특히 당시 일제가 만주 기행문을 통해 자신들의 정책에 호응하는 만주담론을 조성하려 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후 논의에서는 이 시기 만주 기행문들¹⁴로 표면화되는 조선 지식인의 ‘중국(인) 인식’, 그리고 이를 통해 구성되는 식민지 근대주체의 내면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¹⁰ 『동광』 제 24 호에 발표된 「내가 본 재만동포문제 해결책」(1931년 8월호, 14 쪽)에 따르면, 만주를 방문한 한 조선인 인사는 중국인의 배척이유는 간단하고 명백하다면서 “고려인은 xxxx(제국주의)의 전초대요 走狗다. 동삼성이 큰 병이 들었는데 이 병독은 xxxx 이다. 이 병균작용을 하는 자가 고려인이다. 동삼성 소생을 위해선 이 병균을 제거하고 소제해야 한다. 재만 고려인을 일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개탄했다.

¹¹ "일본놈의 아류"의 뜻

¹² 만주에서 조선인이 처한 상황은 중국의 문호개방(1883) 이전의 쇠국 시기, 묵허(默許) 시기(1883-1890), 환영 시기 (1890-1910), 제한 시기(1910-1926), 배척 시기(1927-1931), 일제의 정책적 이주(식민)시기 (1932-1945)의 여서 시기별로 구분한다(유선영,2013:32). 이러한 정책적 전환의 배경에는 소련, 일본, 중국 사이의 힘의 균형의 변화가 놓여 있었다.

¹³ 1920-31년의 만주기행문의 경우, 여행과 시찰의 목적에 의해 쓰여지면서 『개벽』, 『조선문단』, 『별건곤』, 『동광』, 『삼천리』 등의 잡지와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주로 게재되었다.

¹⁴ 1920년대 만주 기행문은 공민, 「만주 가는 길에」, 『동아일보』, 1920.6.23-7.3; 스승, 「경성 p 형에게」, 『개벽』 1호 1920.1; 김원벽, 「만주여행기—四星期間」, 『신생활』 9호, 1922.9; 스승, 「南滿을 다녀와서」, 『개벽』 49호, 1924.7; 박봉, 「국경을 넘어서서」, 『개벽』 49호, 1924.7; 차상찬, 「전라관중에 입한 재중철십만동포」, 『개벽』 52호, 1924; 이돈화, 「남만주행(제1신)」, 『개벽』 61호, 1925.7.1; 이돈화, 「남만주행(2신)」, 『개벽』 62호, 1925.8; 춘해, 「만주여행기」, 『조선문단』 12호, 1925.9; 김홍일, 「북만오지여행기」, 『동아일보』, 1925.10.6-9; 박노철, 「장백산 줄기를 밟으며」, 『동아일보』, 1927.8.2-4; 이종정, 「만몽답사여행기」, 『조선일보』, 1927.10.15.-12.2; 박석유, 「간도의 인상」, 『동아일보』, 1928.10.20-30; 박희도, 「내가 十八歲時節에 滿洲曠野를 밟고 高喊할 때」, 『별건곤』 21호, 1929.6.23; 한설야, 「국경정조」, 『조선일보』, 1929.6.12-23; 김기림, 「간도기행」, 『조선일보』,

3.1 이념으로서의 '희망의 공간', 현실로서의 '수난의 공간'

근대계몽기부터 만주는 조선 민족의 역사적 흥망과 연계된 공간, 또는 북방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실험하는 장으로서 일부 개화지식인들에게 인식되었다¹⁵. 이러한 만주에 대한 인식은 식민지 전 시기에 걸쳐 조선인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었는데, 『청춘』은 1915년에 “近幾百年에는 朝鮮이라하면 白頭以南 漢拏以北의 蠅頭小域을 指言함이 되었으나 曆史上에 在하여 朝鮮이란 名稱은 그 包括하는 境域이 實로 廣大하”다면서, “支那의 沿海에 朝鮮人の 植民地가 成立된”¹⁶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만주를 단지 조선민족의 출생지로만 보지 않고 '식민지'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만주에 투영된 일종의 의사(擬似)제국주의의 시선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상상은 1920-1931년 지식인들의 만주 기행문에서도 종종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차상찬은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朝鮮人は 朝鮮내지에서 放逐되야 自然的으로 祖先의 遺地인 滿洲를 占하게”¹⁷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일보』 간도 특파원 이종정이 만주와 몽골을 돌아보고 나서 1927년에 쓴 기행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땅이 한 예날 우리 선민(先民)의 안주지이었던 것은 회고함이 도리어 무익하다 할지라도 목하(目下) 수백만 백의(白衣) 대중이 주거하는 지대임에 있어 또는 우리의 만대 자손이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 번영할 억만년 미래를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 땅에서 번영할 억만년 미래를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 땅의 사정을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고국에 있어서 나날이 생활의 파멸을 당하고 쫓겨나는 무산 대중의 살길을 찾는 곳도 만주 벌판이라 할 것이며 남다른 의지와 포부로 고국을 떠나는 지사(志士)의 찾는 활무대(活舞台)도 이 만주 황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하면 우리는 먼저 어느 민족보다도 이 만주와 및 몽고 연해주 일대에 대한 사정을 잘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생존권도 확립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야심에 나오는 것도 아니요. 만주는 우리 반도의 연장지역이요. 이 땅에 주거하는 동포의 생명이 또한 내지(內地) 동포의 생명 연장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더욱 연장시키기 위하여 이 땅의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합리한 수단과 방법으로 국제적 지위에 처하여 모든 권리를 수호 신장하기에 전심하여야 할 것이다.”¹⁸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종정은 만주는 조선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조선인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 만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생존권을 확립할 것을 주장한다. 만주가 조선의 ‘연장선’이 된다는 것은 첫째, ‘과거’의 차원에서, “이 땅이 우리 先民의 안주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면에 내세워 민족의 영토적·역사적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둘째, ‘현재의 차원’에서는, “目下 수백만 白衣대중이 주거하는 지대”, “지사의 찾는 활무대”이기 때문에 조선인의 삶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셋째, ‘미래의 차원’에서, “만대 자손이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 번영할 억만년 미래를” 담보할

1930.6.13-26; 김종근, 「만주기행」, 『동아일보』, 1930.12.5-9; 김의신, 「대만주답파기」, 『별건곤』 26호, 1930.2; 신석신, 「봉천기행」, 『조선일보』, 1930.12.24-28 등이 있다.

¹⁵ 근대계몽기 신채호와 박은식의 역사전기 소설은 상실된 역사적 상징으로서 간도와 만주의 공간을 재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순애(2013a)에서 논의하고 있다.

¹⁶ 「고조선인의 지나 연안 식민지」, 『청춘』 6호, 1915. 3. 15-16 쪽

¹⁷ 차상찬, 「전관과중에 입한 재중칠십만동포」, 『개벽』 52호, 1924

¹⁸ 이종정, 「滿蒙踏查旅行記」, 『조선일보』, 1927.10.15.~12.2. 최상룡 외(2010: 53)에서 재인용.

공간으로 만주가 인식되고 있었다. 여기서 만주가 조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개의 차원에서 조선과 친연성을 갖는 공간으로 인식·서술되면서 마치 중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국적의 공간'으로 탈맥락화되고 있다.

이처럼 조선의 '식민지', '祖先의 遺地', '연장선'으로 만주를 규정하고자 했던 이러한 논의들에는, 만주라는 공간을 통해서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일탈을 꿈꾸고 해방감을 맛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측면이 있다. 그외에 1910년대 중반기 본격화된 일제 식민 관학자들의 '만선사관(滿鮮史觀)¹⁹'의 영향도 배재하기 힘들다. 만주에 대한 이러한 식민지 조선인의 욕망은 여행이라는 이동행위를 통해 몸과 눈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확대되면서 좌절을 당하기도 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시기의 만주는 조선 이주민들에게 이념으로서의 "희망의 공간"이나, 현실로서의 "수난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 점은 이 시기 만주기행문들의 대부분은 재만 조선인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을 서술하고 있다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流浪民, 流移民, 放浪, 漂浪, 流離동포란 말은 관용어처럼 기행문에서 재만 조선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되었던 점에서, 현실로서의 만주는 조선 생명의 연장선이 아니라, 실제로 비참과 무력, 착취와 폭력이 넘치는 조선 식민지 현실의 연장선이었던 것이다.

1920년대 대부분의 만주기행문들은 재만동포들의 궁핍, 가난, 중국 지주의 박해, 치안부재로 인한 불안 등을 재현하면서 그들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박석유는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을 "中國의 法權에 服從하게 되어 所謂 "墾民" 이라하는 一種의 特殊한 名義下에 一種의 特殊한 地位를 占有하여 死線以下의 生活苦에 빠저가면서 永永 中國 人地主를 爲하여 未墾地를 沃土맨들어주는데 피땀과 모든 精力을 犧牲하여 왔어도 누구하나 돌아보아주는 사람²⁰"으로 간주하며 한탄했다. 김홍일은 1924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만주에 사는 동포들의 생활상을 "관리에게 토민(土民)에게 도적에게 구축(驅逐)받고 욕먹고 매맞고 약탈을 당하여 다만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는 속아픈 정경"이라 서술하여 "나는 얼마나 이 정상(情狀)을 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쳤을까. 그러나 뇌리 구석구석에서 쏟아져나오는 그 기억의 조각들은 제어(制禦)할 방법이 없었다"²¹고 슬픔을 금치 못하였다. ㅅㅅ생이라는 작자는 1924년 『개벽』 제 49호에 게재된 기행문에서, 만주지역으로 이주한 동포들의 궁핍한 생활상에 개탄하며, 그 원인을 "中國人の 勢力"에서 찾고 있다.

"나는 南滿地方에 漂流하는 우리 同胞를 爲하여 헤아릴수업는 눈물을 흘니엿스며엇든때는 '이것이 우리 同胞랑!' 하고 차내버리고 심흔때도 잇섯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더욱더욱 悲傷하야진다... (중략) 中國人の 勢力에 놀리어 氣運에 밀니어 엇지할줄을 모르고 밤, 낮 苦生이다. 그들의 입에는 쌀밥이 들어가지 못하다. 이들의 몸에는 무명웃도 발나 맛는다. 그들은 中國집 한 間을 빌어서 數三日食口가 接食한다. 이것이, 우리가 京釜, 京畿線鐵路 沿邊에서 朝夕으로 오든, 一生의 怨恨忿怒를 가슴에 가득품고 無聊히 쫓기 여나오는 우리 同胞들이다."²²

¹⁹ 이른바 '만선사관'은 조선을 강점한 일본이 조선의 역사를 만주의 부속품으로 간주하거나, 조선을 지배한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역사 논리를 의미한다.

²⁰ 박석유, 「간도의 인상」, 『동아일보』, 1928.10.20-30.

²¹ 김홍일, 「북만오지여행기」, 『동아일보』, 1925.10.6-9. 최삼룡 외(2010: 325)에서 재인용.

²² ㅅㅅ생, 「南滿을 단녀와서」, 『개벽』 49호, 1924.7. 93 쪽. 최삼룡 외(2010: 205-206)에서 재인용.

『조선일보』의 기자인 김기림은 경성에서 열차를 타고 만주로 떠나는 길에, 그곳에서 사는 조선 유랑민들의 지옥 같은 생활을 공감하면서, 그들의 생활난은 역시 당시 중국인 지주의 횡포 문제로 집약된다.

“연선 일대(沿線一帶)의 옥야천리(沃野千裏)에는 가엾은 우리 농민의 피와 땀이 얼마나 심어 있을까? 그리고도 오늘날에도 그들의 생활은 중국 지주의 폭력(暴戾)한 착취와 압박 아래서 일조(一條)의 광명도 발견치 못하고 생활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는 참담한 지옥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²³

이 시기에 발표된 만주 기행문은 대체로 중국인 관민, 지주에게 시달리는 조선인의 열악한 생존 환경과 궁핍한 생활에 대한 동정과 깊은 원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식인들의 텍스트가 생산되는 물리적인 발화지점은 만주였지만 그들의 의식 지점은 늘 조선을 향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회망의 공간'이었어야 할 만주를 현실적으로 '수난의 공간'으로 변모시킨 장본인은 즉 '중국인'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식민지 조선 내부의 '가해자로서의 일본인 - 피해자로서의 조선인'이라는 대립구도는 만주에서 '가해자로서의 중국인 - 피해자로서의 조선인'으로 바뀌게 되었다. 바꿔 말해, 기행문에 나타난 중국인과 조선인의 관계는 조선 내부의 '수탈 - 저항'이라는 식민지 억압구조와 구조적으로 일치하게 표출되었다. 이러한 '수난 서사' 속에서 중국인의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정형화되었다.

3.2 기행문에서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

(1) 가해자로서의 중국인

이 시기 많은 기행문에서 가해자로서의 중국인 이미지가 노골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특히 “无情한 中国人”²⁴이라는 이미지는 압도적이었다. 일례로 김의신은 그의 기행문에서 조선인에게 냉담하고 멸시하는 중국인의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무단村』이북부터는 朝鮮사람이 꼭 稀少하게 산다. 지나 단이는 것은 모다 中國사람이다. 길을 물어도 잘 대주지를 안는다. 朝鮮사람이라고 그간에 업쓴여겨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꺼우리방즈』라나 등 멸시적 말만 한다. 그뿐인가 小꺼렌놈이라는데는 사람이 가삼이 터지는 듯한 쓰라림을 느낀다.²⁵

이뿐만 아니라, 돈밖에 모르는 탐욕스럽고 무정한 중국인의 이미지는 이돈화의 기행문에서 보여지고 있다. 그는 여행 중 중국의 마방객주(馬房客主)에서 겪은 충격에서 오는 당혹감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 건너便床에서 또 霹靂차는 소리가납니다. 그것은 다른 緣故가안이라, 나와 同行하는 상투쟁이同胞가, 五六歲되는 딸년을 다리고가는길인데, 路費가 不足하야, 밥을 한 床만식었는데, 딸에게 밥 한술을 멕이다가 使喚軍한테 들켜 야단봉변이 난 것입니다. 中國客主에는 제밥을 남을 주게 되면 主人에게 損害라하야, 그것을 嚴禁하는 것이, 마치 監獄의 罪囚가 밥을 서로 논아 먹지 못하는 法則과 한 가집니다. 아-

²³ 김기림, 「간도기행」, 『조선일보』, 1930.6.16. 최상룡 외(2010: 96)에서 재인용.

²⁴ ㅅㅅ 생, 「南滿을 다녀와서」, 『개벽』 49호, 1924.7. 93 쪽. 최상룡 외(2010: 207)에서 재인용.

²⁵ 김의신, 「대만주답파기」, 『별건곤』 26호, 1930.2. 133 쪽

人間이나 짐승이나, 이려고도 萬物의 靈長이라는 自信도 업습니다. 다만 돈입니다. 돈, 돈, 돈이면 그만입니다. ”²⁶

이처럼 밥 한상만 시켰다고 해서 어린 아이에게 밥 한술을 먹이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은 중국객주는 “인간이나 짐승이나” 한탈하게 할 정도로 도덕적인 측면이라는 것 전혀 없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만주 중국인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馬賊', 또는 '인신매매' 등은 기행문에서 자주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돈화는 마적을 “滿洲名物”²⁷이라고 칭했고, 김의신은 만주에서 여행하면서 “中國사람만 하나 만나면 저게 馬賊이나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²⁸까지 했다. 그는 기행문에서 만주에 와서 아버지를 찾다가 인신매매를 당한 어떤 조선 여자의 경험을 동정을 어리면서 서술하고 있다.

“... 그놈과 철모를때부터 6년동안을 가치 살다가 어느해 이월에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하다가 고만 중도에서 붓들이어서 밤낮 나흘동안이나 옷을 벌거벗기우고 그 지독한 매를 마칩니다. 그것도 부족하던지 불젓가락으로 사람의 전신을 지잡되다. 그러니 기절을 하고 기절을 하고 몇번이고 기절을 했습니다. 그런지 한 1개월후에 지금나와 가치사는 中國사람의게 팔아서 그사람과 지금까지 삼니다.”²⁹

이와 같은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가해자로서의 중국인 이미지는 그들이 조선 이주 농민을 핍박한다는 서술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박노철은 『동아일보』 1927년 8월 2일부터 4일까지 게재된 기행문에서, 길림에서 간도 8백리를 도보로 통행하며 살펴본 길림 이주민의 살림살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주인은 내게 진정을 토한다. 5년 전에 이 땅에 와 되놈의 소작으로 수전(水田)을 개간하는 중 무지한 그 압박에 기를 못 펴고 산다고 한다. ..(중략) 나는 그대로 지날 수 없어 들어가 주인을 찾으니 영남 사투리 하는 노인이 나와 맞는다. 그도 역시 자기신세를 한탄하여 일장 설화를 꺼낸다. 서간도(西間島)에서 7년 전 되놈의 지팡살이(소작)를 하다가 재작년에 이곳으로 와 또 남의 땅을 부치고 있는데 흥의적으로 인하여 걱정이 된다한다. 일전에도 자기를 포박하여 놓고 총머리로 난타하며 돈과 색시를 내놓으라 하므로 그 위협에 못 견디어 금전을 내놓고 애걸한 결과 천행으로 사람을 뺏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 육군은 무시로 와서 가축을 약탈하므로 하루 한때 마음 놓고 살 수 없다 하며 한숨을 내쉬다.”³⁰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인을 향한 “되놈”(중국인)의 폭력은 단지 개별 중국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국 육군'까지 동참하는 집단적인 핍박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비슷한 인식은 1925년 『개벽』 제 60호와 제 62호에 게재된 이돈화의 기행문에서도 나오고 있다.

²⁶ 이돈화, 「남만주행(제 1 신)」, 『개벽』 61 호, 1925.7.1. 최상룡 외(2010: 171)에서 재인용.

²⁷ 이돈화, 「남만주행(2 신)」, 『개벽』 62 호, 1925.8. 최상룡 외(2010: 177)에서 재인용.

²⁸ 김의신, 「대만주답파기」, 『별건곤』 26 호, 1930.2. 133 쪽

²⁹ 김의신, 「대만주답파기」, 『별건곤』 26 호, 1930.2. 135 쪽

³⁰ 박노철, 「장백산 줄기를 밟으며」, 『동아일보』, 1927.8.2-4. 최상룡 외(2010: 358-359)에서 재인용.

“水田은 中國領土인關係상, 全部가 小作農이어서, 中國人의橫暴
 가적지안타합니다... (중략) 中國은 中國軍人의 일이 그러할 뿐만아니라, 中國官廳의
 行事が 또한 그러하다 합니다. 돈만 잇으면 重罪人이라도 無罪放免이 될수잇고,
 돈만업스면 一時拘留자리도 몇달 苦生이 例事라합니다... (중략) 完全히 舊韓國時代의
 葬政과 恰似하다합니다. 안이, 그以上으로 沒廉恥라합니다.”³¹

이처럼 작자가 개개인으로서의 중국인으로부터 군인, 관청을 포함한 정부 측면에
 이르기까지 “舊韓國時代의 葬政”보다 더 타락하고 염치없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는 현실로서의 만주가 중국의 하나의 ‘축소판’으로 보이는 측면이 깔려 있는데, 위에서
 보여준 이념으로서의 “중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국적의 공간’”이라는 만주 인식과
 대조된다. 특히 여기서 만주를 통해 보여지는 중국의 ‘현재’를 한국의 ‘과거’와 비교한다는
 것의 기저에 진화론적인 문명관이 분명히 작동되고 있다. 이 점은 ‘비문명인’, ‘미개인’으로
 중국인을 그려내는 아래 서술을 통해서 역시 확인 가능하다.

(2) 미개인으로서의 중국인

1920년대 조선인 지식층이나 일반인이 만주에서 목도하는 첫 장면은 늘 중국인 쿨리(苦
 力)들이 승객들에게 물려드는 장면이었고³², “코를 찌르는 아편 냄새 섞인 강렬한 악취”³³와
 “무엇이든지 땅에 닿는대로 먼지가 펄석펄석 나서 ... 不潔로 徹底”³⁴한 비위생적인 전근대
 풍경들이었다. 이런 공간에서 거주하는 중국인은 역시 더럽거나 ‘무지’와 ‘미개’로 귀결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중국인이 등장할 때마다 ‘마약’이나 ‘아편’은 늘 묘사 대상이었다.

“나는 피곤해 잠이 들다가 싸우는 소리에 깨어보니 바로 옆에 방에서 중국인들이 노름판을 벌여놓고 한창 싸우는
 중이었다. 그리고 건너 칸에는 4,5인이 반듯이 누워 제가꿈 아편(阿片)을 빨고 있다.”³⁵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아편을 피우는 장면이 나와 중국인의 ‘미개함’을 한층 입증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피워 문 후에 연방 침을 토하면서 빨고있다. 미개인일수록 알콜과
 니코틴(니코틴)등 독물을 기호한다더니 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한다.”³⁶

여기서 이렇게 ‘더러운’ 중국과 야만에 가깝게 그려지는 ‘미개한 존재’로서의 중국인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인식은 일관적이지 않고 중첩적이면서 모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의신은 마적과 인신매매가 넘치고 법치와
 도덕이 부재한 만주의 모습을 형상화한 후에, 북만주 寧古塔의 ‘진보된’ 모습을 부각하여
 일본에 의한 ‘근대화’를 극찬했다.

³¹ 이돈화, 「남만주행(2신)」, 『개벽』 62호, 1925.8. 최삼룡 외(2010: 175-177)에서 재인용.

³² 김원벽, 「만주여행기—四星期間」, 『신생활』 9호, 1922.9. 90-106쪽; 이 글에서 김원벽은 압록강세관에서 물려오는 중국인
 인력거꾼들을 ‘흑색노동자우리들’로 표현했다.

³³ 김기림, 「간도기행」, 『조선일보』, 1930.6.16. 최삼룡 외(2010: 99)에서 재인용.

³⁴ 공민, 「만주 가는 길에」, 『동아일보』 1면, 1920.6.26.

³⁵ 박노철, 「장백산 줄기를 밟으며」, 『동아일보』, 1927.8.2-4. 최삼룡 외(2010: 356)에서 재인용.

³⁶ 김홍일, 「북만오지여행기」, 『동아일보』, 1925.10.8. 만주기행문, 331

“그날 寧古塔까지 왔다. 寧古塔는 북만에 屈指하는 대도시로 아페는 牧丹江이 흐른다. 시가내에는 黑煙을 吐하는 공장 煙突이 논피 소순 것을 보니 꽤 진보된 도시다. 日本의 滿蒙政策은 참 위대하다. 아직까지 세력은 폐치 못했스나 개척의 斥候隊인 유명한 娘자군은 陣疊을 공고히 하고 있다. 대규모의 日本人요정이 그것이다. 寧安縣政府審判廳 각 중소학교가 있고 상점에도 『라디오』 축음기가 늘 노래를 한다.”³⁷

이렇듯 김의신은 일본의 만주 지배에 대해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일본의 만몽정책은 참 위대하”다면서 일본의 만주지배의 필연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만주 뿐 아니라 ‘지나’ 전체를 일본이 지배해야 된다는 논리를 그 이면에 담고 있다.

1922년 『신생활』 기자 자격으로 만주를 순유한 독립운동가 김원벽은 단정한 일본인 상점에 비하여, “형색이 컴컴하고 문외가 불결하여 악취가 大甚한 중국인 상점”들, “불결한 것이 특색인” 장춘의 중국인 市街, “앞머리 깎은 것에 정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중국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다 장춘에서 만난 일본영사관 형사의 만주에서 일선융합(日鮮融合)이 조선보다 더 잘되는 것 같다는 말에 동의하며, “일본인 태도가 (조선에서보다) 좀 다른 것 같다. 만주에선 日鮮人の 惡관계가 배치되지 않는 점이 많고 조선인보다 더 천대할 청인이 무수하니 청인을 싫어하는 심정으로 조선인에게 좀 호감을 두는”³⁸ 것이라고 답변한다. 독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을 ‘청인(淸人)’이라고 부르면서 일본이 조선인에 호감을 더 갖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김원벽의 반응을 통해, 민족 간의 위계를 합리화하는 제국주의의 논리가 당시 조선 지식인에게 얼마나 내면화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 - 조선”이라는 대립항은 중국에서 난데없이 사라지면서 ‘일본 - 중국’, ‘조선 - 중국’이라는 대립항으로 대체되며, 지식인의 의식에 투영된다. 그들은 의식적으로는 식민지 지배자로서의 일본에 반대하고 저항하면서, 무의식적으로는 일본의 시선과 맥을 같이하여 중국인을 ‘미개함’으로 규정지어 일본의 만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제국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제국 담론에 동참하게 되었다.

‘식민지인’과 ‘식민지인’이 대면할 때 나타난 이러한 분열된 의식은 춘해³⁹의 기행문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는 1925년에 서울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하얼빈에 도착하기까지 열차 안에서 만난 중국인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車안에는 中國人으로 꼭찻다. 보통이를 들고 때를지여 드러온다. 한다디 모을 말을 귀가아푸게 떠든다... 停車場마다 中國軍人과 警官이 만히되인다. 그러나 허리가굽우러지고 洋服은 큼직하게 해넉어 格에맛지안는데다가 腳伴아래 淸鞋를신고 척느러트리고 阿片장이처럼누리통통 한 얼굴에 精神氣 하나업시 멍-하니 서잇는 꼴은 勞動者랄지 病者랄지 怯弱하지마는 한손접어 볼수박게업다. 나는 中國사람의게 好感을 가지랴고 애를쓰면서도 우리도 未開한 나라지만은 그未開한 꼴을보면 구역이 나올것갓고 웃는것 갓해서 맞치 내- 나라사람이 모욕을 當하는것갓흔 붓그럼과 不安이 생기는것을 抑制치 못하갓다.”⁴⁰

춘해의 눈에 비치는 중국인의 모습은 시끄럽고 촌스러우며, 아편쟁이처럼 정신기 하나 없시 멍하는 미개한 꼴이었다. 이러한 중국인에 대한 그의 인식은 복잡하기 짝이 없다. 이성(理

³⁷ 김의신, 「대만주답파기」, 『별건곤』 26호, 1930.2. 135쪽

³⁸ 김원벽, 「만주여행기—四星期間」, 『신생활』 9호, 1922.9. 90-106쪽

³⁹ 춘해는 『조선문단』의 발행인 방인근(方仁根)의 호다.

⁴⁰ 춘해, 「만주여행기」, 『조선문단』 12호, 1925.9. 최삼룡 외(2010: 211-212)에서 재인용.

性)적인 측면에서는 피지배자라는 동일한 위치를 자각하면서 중국인에게 어느 정도 동질감을 느끼는데, 감성(感性)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의 미개한 꼴을 구역이 나올 정도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가 '문명/야만'의 기준으로 조선과 조선인을 '야만'에 편입시켰던 같은 논리로 중국인을 '야만'에 편입시킨 자기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중국인들에게 "호감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끝내 차별의식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그러한 자신이 한심스럽고, "마치 내 나라사람이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부끄러움과 불안이 생기는 것을 억제치 못한"다면서 죄책감까지 느낀다. 이처럼 '근대'에 대한 강력한 강박감은 그의 의식의 균열을 일으킨다. 중국에서 자기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식민지인을 대면할 때야 비로서 자기의 '하얀 가면'을 의식하게 되는데, 도저히 그 가면을 벗지 못하는 자신의 모순된 내면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듯 '식민지 근대성'에 의해 깊이 내면화된 식민지 지식인의 분열된 의식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3) "萬綠叢中一點紅"의 중국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여행자의 눈에 비친 중국인은 때로는 무정하고 탐욕스러운, 때로는 조선인을 핍박하는 가해자로서의 이미지, 때로는 무지하고 천대한 미개인으로서의 이미지 등 주로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로써 중국은 곧 야만이라는 틀이 확고부동하게 형성되는 것이었다. 물론 중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馬車는 五臺가 나란히 하여 가게 되었습시다. 거의가 다 中國사람입니다. 萬綠叢中一點紅, 그 中에는 얼는 눈에 뜨이는 中國青年 한 사람이 보힙니다. 아마도 北京이나 外國地方에 遊學하는 青年가태 보였습시다. 三四日이나함께가는길이라, 둘이 다-말은 모르나, 彼此에 靈犀는 비치워, 한번 말을 실컷 하여 보앗스면 조켓스나, 그는 엇질 수 업고, 어느 날은 큰 고개를 넘다가 幾十裏假量 步行하게 되야, 서로 筆談이 始作되었습시다. 筆談의 要領이 이려힙니다. 青年 말만 쓰갓습시다. 「最近 日本의 內情이 엇더합니까」하고 못습니다. 다음은 「奉直戰爭時에 張作霖이가 日本과 秘約한 條約이 잇슨듯한데, 貴下가 或其內情을 몰으심니까」하고 무릅니다. 또는 「將來 世界大勢가 엇지 될 것 갓습니까」하는 等の 政治的 問答입니다. 이만하면 그 青年의 뜻이 엇더한 것을 알 수 잇습시다. 乃終에 알고보니, 그 청년은 中國의 壹青年士官인 崔春園이라는 有志였습시다. 崔氏는 그 날 點心 때에, 午餐 한 턱을 내고, 朝鮮人의 00思想이라든지 또는 朝鮮에 天道教形便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무름이 잇섯습시다".⁴¹

이돈화는 무순에서 흥경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중국청년과 오랜 시간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필담으로 대화를 나눈다. 유학생처럼 보이는 그 중국인 청년은 군인이었고, 그들은 필담을 통해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소통하고,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다. 이돈화는 그 청년을 '有志'라 부를 만큼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말로 소통할 수 없는 이들에게 필담은 뜻을 전달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문화적 수단이 되었다. 필담을 통해 한편으로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친근감을, 다른 한편으로 당시 한중 양국이 같이 처하고 있는 불안정한 정세에 대한 시대적 고민과 교감을 공유하게 된다. 이어서 이돈화는 어느 소학교에 들어서 구경한 일을 서술한다. 어린이들은 학교 구경을 잘 하라는 필담을 전하다가 그를 하여금 외국에 왔다는 사실을 잊게 하였다.

⁴¹ 이돈화, 「남만주행(제 1 신)」, 『개벽』 61 호, 1925.7.1. 최삼룡 외(2010: 172)에서 재인용.

“어린이란 神聖한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는 內外가 업습니다. 웃는 짓이라든가 뛰고 노는 짓이라든가, 팔목을 잡고 다른 아해보다 나와 먼저 말하야 달나는 아양이라든가 하는 것이, 조공도 朝鮮少年과 다름이 업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말과 衣服입니다. 나는 少年의 손목을 번가라잡으며, 머리를 끄덕끄덕하니까, 少年들은 조하라고, 손목을 잇글고校室로 들어갑니다. 校室 안에 걸상노흔法이라든지, 漆板건法이라든지하는것은 萬國의 通例라거디에다른것이 업고, 壁우에 孔子孟子의 畫像과 關壯繆 岳武穆의 畫像을 걸엇습니다. 그리고 教訓이라하야 「整潔」二字를 크게써붓첫스며, 다음은 勿曠課勿喧嘩이라하엿습니다.”⁴²

잠시의 만남이지만, 국경과 나이를 뛰어넘는 어린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돈화는 이들이 조선 소년과 다름이 없다는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낀다. 또한 학교 교실 안에서 萬國의 通例에 따르면서도 중국 전통문화를 지키고 계승 발전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한다. 필담에 대한 비슷한 언급은 신석신의 기행문에서도 나오고 있다.

우리가 이學校를 본本意는 東洋으로서는 有名한 現代中國新女性이 얼마만치나 活氣를 띄고잇는가 實地로 보고저함이다.... (중략) 學生은 全部斷發을 하였는데 우리나라에 잇다금보이는 斷發美人式이아니라 男子와 맛찬가지로 깎가편단출하다낫서투른 손님이 왓건만 손가락질하고 속은거리는 짓이업고거저 天然스럽게 活潑한態度는 우리나라 女學生의 수삽한態度는 말도말고 男子도또한말을수업섯다. 아-勇快한 中國女性! (중략) 車中 에서 實際로 鳳凰城 女子中學生徒 한 사람과 數時間 동안 筆談을 交換 해보고 그네의 지나친 發達에 놀내었다.⁴³

신석신은 봉천의 同澤女學校를 방문하면서 내내 조선 남자도 따르지 못한 중국 여학생의 “천연스럽게 활발한” 모습에 감탄한다. 이어 이동 중에 만난 여학생과 수시간 동안 필담을 나누며 용쾌한 중국 신여성의 발달상을 확인하였다고 고백한다.

위의 기행문에서 나오는 청년, 소년, 그리고 여학생들은 다른 기행문에서 등장하는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부정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더 드러나 보인다. 소위 “萬綠叢中一點紅”이었던 것이다. 그들과의 필담을 통해 조선 지식인들은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친근감과, ‘근대’라는 척도로 중국의 ‘가능성’을 느끼게 된다. 미미하나마 중국인을 부정적으로만 그려내는 편향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제 4 장 결론: ‘식민지 - (반)식민지’ 구도 도입을 제안하며

위에서 1920-1931년 조선 지식인들의 만주 기행문에서 나타난 ‘중국(인)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조선 민족의 ‘희망의 땅’으로서 만주를 열망하였으며, 단순한 타국체험을 넘어 민족 공동체의 생존과 결부된 측면에서 만주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과는 다른 차원으로 현지에서 그들은 중국 관민에게 시달리는 조선인의 열악한 생존 환경과 궁핍한 생활상을 눈으로 확인하였다. 그 와중에 만주는 혐오와 공포가 교차되는 ‘수난의 공간’이자 ‘미개한 땅’으로 묘사되게 된다. 그 공간에서 조선 지식인의 근대적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제국 외부의 이방인, 조선인, 동양인이자 식민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부딪치며 빚어낸 균열을 이들의 기행문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

⁴² 이돈화, 「남만주행(제 1 신)」, 『개벽』 61 호, 1925.7.1. 최상룡 외(2010: 173)에서 재인용.

⁴³ 신석신, 「봉천기행」, 『조선일보』, 1930.12.24-28. 최상룡 외(2010: 241)에서 재인용.

만약 '제국 - 식민지'라는 이원적인 구도에 놓고 본다면, 피지배자라는 공통된 처지에 속했던 조선인과 중국인은 서로 마주대할 때, 연민이나 연대의식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지식인들의 기행문에서 보여지듯이, 같은 문화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중국인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는 면은 없지 않았으나, 중국인을 자기와 같은 피지배자로 인식하고 연대해야 할 의식은 한없이 희미하였다.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은 때로는 '조선인'이라는 시선을 통해, '되놈', '무정함', '물염치' 등 가해자로서의 중국인을 인식하고, 때로는 '근대적 주체'라는 의식을 통해, '비위생적', '비문명적'인 존재로 조선인보다 열등한 존재로 중국인을 형상화시켰다. 한편으로 수난의 서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식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근대'라는 척도에서 민족간의 위계와 차별감을 재생산하는 분열된 의식은 그들의 기행문에서 종종 나타난다. 이렇게 중국(인)을 향한 그들의 시선에는, '간접 체험'으로서의 당시 조선 사회의 지배담론을 답습하는 면이 컸으며, 또 일종의 생생한 '직접 체험'으로 국내 독자들에게 전하여 궁극적으로 기존의 지배담론을 강화시키고 재생산하는 주체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인) 인식'은 도대체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또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가해자'로서의 중국인을 인식하는 경우는, 재만 조선인의 불안한 생활상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한중 간 갈등의 심층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을 차단하고 있다. 전희진(2013:158)은 식민지 시기에 조선인과 화교간의 갈등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식민지 시기 조선인과 중국인의 민족 갈등은 단순히 중국인의 특성 혹은 두 민족 간의 양자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의 유지와 경영이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큰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식민지 시기 조선인과 중국인의 양자 관계는 항상 일본 제국주의를 포함하는 다자 관계의 일부로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조선의 연장선으로 인지도된 만주에서 나타난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관계를 설명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20세기 전반 '아시아'에서의 경계와 탈경계의 경험을 앞서 규정짓고 있던 것은 다름아닌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였다. 조선 지식인들은 망각하거나 자각하지 못한 하나의 사실은, '식민지/제국' 체제 내에서 식민지인 조선인은 도저히 독립적인 개별 민족으로서 '조선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중국인은 대개 조선인을 '얼케이즈'로 부른 것은 다름아닌 조선인은 일본, 제국의 식민주의와 분리될 수 없는 '식민지민 조선인'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로지 한중 갈등만이 재현되는 이들의 기행문에서, '일본 - 조선'이라는 대립구도가 '중국 - 조선'이라는 대립구도로 그대로 치환된다는 것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의 존재 및 당시 일본과 중국간의 침략과 저항의 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만주행은 식민지 현실을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제국주의의 폭력과 제국논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조선을 이탈한 공간에서, 제국주의를 매개로 하여 엄연히 피억압·피지배 민족 간의 증오와 폭력, 분노와 적대, 슬픔과 원한으로 분출되었던 것(유선영 외, 2013:7)은 이들의 기행문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미개인'으로서의 중국인을 인식하는 경우는, 서양인들이 동양을 바라볼 때의 시선으로부터 19세기 말 일본인들의 조선 기행문에 나타난 시선(박양신, 2003)과 너무나 유사한 일종의 '시선의 계승'을 확인케 한다. 일반적으로 '서양 - 동양', '제국 - 식민지'라는 구도에서 논의되어 온 이러한 오리엔탈리즘 '시선의 계승'은 '식민지 - (반)식민지'라는 구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미개'하고 '역겨운' 중국인, '과거 한국'보다도 못한 타락한 중국 정부, 무법천지의 땅으로서의 만주 등 식의 담론 생산은 일제가 이 땅을 확보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문명화시켜야 한다는 제국주의 논리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것은 만주국 설립 후에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제국주의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식의 담론으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이러한 '중국(인) 인식'은 결국 본의 아니게 제국담론을 답습하면서 일본의

만주지배와 대륙침략의 당위성을 긍정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식민주의와 근대성 간의 은밀한 공모성을 한층 더 입증해 주고 있다. 결국 제국 자체를 지탱하는 담론으로 귀결되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무력화시키거나 차단하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처럼 이 시기 조선 지식인들의 만주 기행문에서 나타난 '중국(인) 인식'은 궁극적으로 조선 지식인들이 중국을 상상하거나 인식하는 데에 있어 '식민지-(반)식민지'라는 인식 구조가 누락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식민지/제국' 체제 하에서, 식민지배라는 특수한 경로를 통해 근대성이 형성되는 '식민지 근대성'이 지식인의 의식 속에 깊이 내면화되었던 것에 기인한다. 기행문에 의해 재현되었던 '실체'가 아닌 '표상(representation)'으로서의 '중국(인)'은 바로 이러한 '식민지 근대성'의 내면 형성의 한 단면을 비추어보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중국(인)에 대한 응시는 결국 식민지주민의 자기응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근대세계사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은 명백하지만, '식민지 근대'를 일본과 조선이라는 양국만의 문제, 또는 제국과 식민지간의 문제로 사고해온 기존의 관점을 벗어나, '식민지-(반)식민지'라는 구도 도입의 필요성을 재삼 절실하게 느껴진다. 이것은 동아시아 피지배 민족간의 역사적 연계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진보', '발전', '근대화'라는 단선적인 '역사적 시간도식'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러한 구도의 도입은 1930년대 후에 조선 지식인들의 대량 사상전향(轉向)을 해명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1920-1931년의 기행문에 나타난 '중국(인) 인식'을 그 다음 시기 기행문에 나타난 '중국(인) 인식'과 비교한다면, 어떤 일관된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속성을 염두에 둔다면, 만주국 건국 후에 만주는 '이등 국민'으로서, 또는 식민화의 주체로서의 조선인의 욕망이 본격적으로 투영되는 공간이 되었다(곽은희, 2014:92-93)는 조선 지식인의 인식을 단지 시국선전물로 치부되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사상적 전향의 기미는 그 이전 시기에 이미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적 전향은 결코 사상이 급변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체제의 강요에 의해 부득이한 것도 아니며, '문명'의 이름으로 진행된 근대적 세계체제의 변동과 동아시아의 맥락 속에서 '식민지 근대성'의 내면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3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전향'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른바 '전향의 전야(前夜)'에 이미 묻히게 된 '불가항력'들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향후 연구에서 계속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작으나마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자료:

『개벽』, 『동광』, 『동아일보』, 『별건곤』, 『신생활』, 『조선문단』, 『조선일보』, 『청춘』

단행본:

Lattimore, O(1932). Manchuria: Cradle of Conflict. N.Y., MacMilan.

Park, H. O(2005). Two dreams in one bed: Empire, social life, and the origins of the North Korean revolution in Manchuria. Duke University Press.

유선영 외(2013), 『‘동아’ 트라우마』, 그린비

최삼룡 외(2010), 『만주기행문』, 보고서

한석정(1999),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출판부

학술지 논문:

- Narangoa, L. (2002). The Power of Imagination: Whose Northeast and Whose Manchuria?. *Inner Asia*, 4(1), 3-25.
- 곽은희(2014). 틈새의 헤테로토피아, 만주. 『인문연구』 (70), 83-114.
- 김경남(2013a). 1920년대 전반기 『동아일보』 소재 기행 담론과 기행문 연구, 『한민족어문학』 (63), 251-275.
- _____ (2013b). 근대적 기행 담론 형성과 기행문 연구. 『한국민족문화』 (47), 93-117.
- 김성욱(2007). 192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한국언어문화』 (34), 111-137.
- 김승구(2008). 식민지 지식인의 제국 여행-임학수. 『국제어문』 (43), 181-214.
- 김승욱(2012). 20세기 초반 韓人의 上海 인식. 『중국근현대사연구』 (54), 121-144.
- 김외곤(2004). 식민지 문학자의 만주 체험-이태준의 [만주 기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4), 301-321
- 김진희(2015). 제국과 식민지 경계의 텍스트. 『한국문학연구』 (48), 257-286.
- 김태웅(2009). 1920·30년대 한국인 대중의 華僑 認識과 國內 民族主義 系列 知識人의 내면세계. 『역사교육』 (112), 93-131.
- 남춘애(2011). 중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 한국소설에 나타난 중국 지주형상 연구-20세기초 중국을 배경으로 한 한국 소설을 중심으로. 『문예시학』 (25), 27-40.
- 류시현(2007). 여행과 기행문을 통한 민족, 민족사의 재인식: 최남선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총』 (64), 103-129.
- 박양신(2003). 19세기 말 일본인의 조선여행기에 나타난 조선상. 『역사학보』 (177), 105-130.
- 백영서(1997). 大韓帝國期 韓國言論의 中國 認識. 『역사학보』 (153), 105-139.
- 박장배(2015). 20세기 전반기 한국 지식인들이 경험한 중국 일각의 반한정서 (反韓情緒). 『사람』 (51), 101-127.
- 배주영(2003). 1930년대 만주를 통해 본 식민지 지식인의 욕망과 정체성. 『한국학보』, 29(3), 35-57.
- 유인순(2002). 근대 한국소설에 투영된 中國·中國人. 『한중인문학연구』 (8), 169-194.
- 유선영(2013). 서론, 20세기 전반기, 초국적 이동의 예외로운 식민지민의 이동, 유선영. 차승기 역, 『‘동아’ 트라우마』, 그린비, 14-52.
- _____ (2012). ‘東亞’ 트라우마, 제국의 지정학적 공간과 ‘이등신민’의 정치학. 『사회와역사』 (94), 217-259.
- 이등연(2012). 근대 초기 한국문인 한시작품 속의 ‘중국·중국인’ 형상 연구. 『중국인문과학』 (51), 417-448.
- 이준식(2006).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 방기중 편,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 해안, 69-76
- 서경석(2004). 만주국 기행문학 연구. 『어문학』, 341-360.
- 서영인(2007). 일제말기 만주담론과 만주기행. 『한민족문화연구』 (23), 209-238.
- 장영우 (2008). 만주 기행문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5), 375-412.
- 정문상(2012). 근현대 한국인의 중국 인식의 궤적. 『한국근대문학연구』 (25), 203-231.
- 전희진(2013). 상상된 중국인 그리고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딜레마. 『사회와역사』 (97), 139-176.
- 조정우(2013). ‘척식’이라는 비즈니스, 유선영. 차승기 역, 『‘동아’ 트라우마』, 그린비, 100-128.
- _____ (2015). 만주의 재발명. 『사회와역사』 (107), 217-250.

- 차승기(2012). 내지의 외지, 식민본국의 피식민지인, 또는 구멍의 (비) 존재론. 『현대문학의 연구』 (46), 349-386.
- 한기형(2005). 동아시아 근대 지성의 동아시아 인식; 근대 초기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 [청춘] 과 [개벽] 의 자료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0), 167-198.
- 허경진. 강혜중(2011). 근대 조선인의 만주 기행문 생성 공간. 『한국문학논총』 (57), 239-269.
- 홍순애(2013a). 근대계몽기 만주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과 영웅서사의 리얼리티. 『한국문학과 예술』 (11), 103-128
- _____ (2013b). 만주기행문에 재현된 만주표상과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간극. 『국제어문』 (57), 407-439.
- _____ (2015a). 이광수 기행문의 국토여행의 논리와 공간 정치의이데올로기. 『국어국문학』 (170), 485-514.
- _____ (2015b). 최남선 기행문의 문화민족주의와 제국 협력 이데올로기-[송막연운록] 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115-115.
- 劉豔萍(2015). 姜敬愛中國東北題材作品中的中國形象. 『東疆學刊』, 1-7.

학위논문:

- 김성욱(2009), 韓國近代小說에 나타난 '타자 이미지' 研究 : 中國人 '形象' 을 中心으로, 학위논문(박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표언복(2004), 박사논문, 해방전 중국 유이민소설 연구, 학위논문(박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 秦亞偉(2015). 韓國現代知識分子的 “滿洲” 認識研究, 학위논문(석사), 山東大學.